빛 비추니 숨겨진 아미타부처님 형상 나투네

법응 스님,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

15~16세기 중국서 제작 추정
2022년 美 신시내티미술관서
가치 재발견되며 유물에 주목
전 세계 5점뿐…투영은 3점만
"용도는 미상, 연구 더 필요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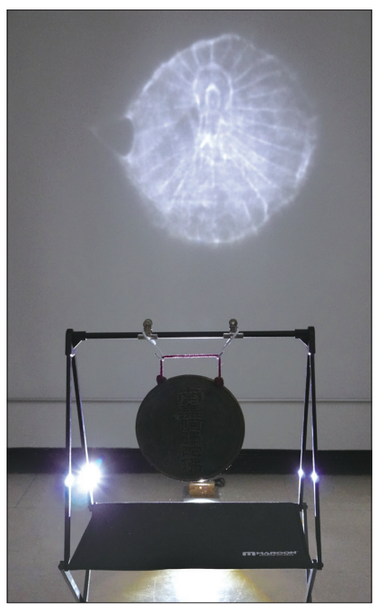
불 꺼진 스튜디오에 설치된 청동거울에 빛을 비췄다. 이내 스튜디오 벽에는 음각돼 있던 아미타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미타부처님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이 뚜렷했고 전체적인 형상도 확인됐다. 앞면에는 '나무아미타불' 명문이, 뒷면에는 거울로 된 '투광경'의 실물이 한국에 시연·소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2월 23일 서울 삼빛스튜디오에서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를 개최했다.

법응 스님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입수한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은 직경 21.5cm, 두께 6mm의 청동거울이다. 15~16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광경은 거울 정면에 빛을 비추면 부처님 형상이 투영되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

유사한 유물이 '마법 거울(매직 미러)'로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3월 19일에 외신을 통해서다. 당시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쑹 허우메이 큐레이터에 의해 해당 유물의 가치가 재발견됐으며 이후 퍼트넘 미술관도 조사해 투광경 유물을 세상에 알렸다.

투광경은 전 세계 23점만 존재한 희귀한 문화유산으로, 특히 불교 관련 투광경은 중국 상하이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등에 5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마저도 투영이 되는 문화유산은 3점뿐이다.


2월 23일 서울 삼빛스튜디오에서 열린 '나무아미타불명 투광경 시연회'에서 투광경 정면에 빛을 비추니 숨겨졌던 아미타부처님이 투영됐다.

법응 스님은 입수한 투광경이 미국 신시내티미술관 소장 투광경과 동일 작가가 제작한 유물이라고 봤다. 스님은 "신시내티미술관 투광경 관련 뉴스를 접하고 동일 기능의 유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노력 끝에 동일한 형태·기능의 유물을 입수했고 종교·문화·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한 기능이 있기에 신시내티미술관 투광경과는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시내티미술관에서 복제품을 만든 적도 없고 아니면 똑같이 금형을 떠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23점 밖에 없는 희귀 유물이기에 관련 연구가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응 스님은 "일본에 있는 투광경에는 십자가를 새긴 것도 있다. 이는 기독교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일본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다"면서 "투광경의 용도는 순수하게 신앙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구체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CIA, 사찰음식 세계화 '맞손'

2월 12일 업무협약 체결
교육 등 공동 협력하기로

한국의 사찰음식 세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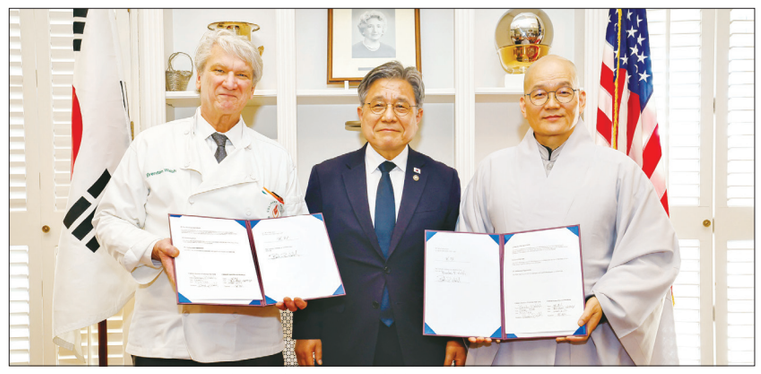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요리교육기관 '미국 요리학교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이하 CIA)'와 한국 사찰음식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CIA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 사찰음식과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강연, 워크숍, 교수진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채소, 곡물, 허브,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물성 중심의(Plant-forward) 조리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이 지닌 철학과 지속가능한 식문화 가치를 세계 요리 인재들에게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사찰음식 문화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전통 사찰음식 정신과 조리 원리를 현대 요리 교육에 접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나아가 공동 연구와 자료화 사업을 통해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과 브렌던 월시(Brendan Walsh) CIA 학장, 양종집 CIA 교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한국 사찰음식 및 한식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미국 요리학교 CIA의 브렌던 월시 학장이 한국 사찰음식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한 몸 한 마음의 큰 사랑

㉛ 동체대비(同體大悲)

同 體 大 悲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감통' 편에는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걸인 여인을 구한 정수 스님의 이야기가 전한다.

제40대 애장왕 때, 승려 정수는 황룡사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이고 날이 저물 무렵, 그는 삼랑사에서 돌아오다 천엄사 문밖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갓 아이를 낳은 걸인 여인이 추위에 얼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정수 스님은 지체 없이 여인을 안아 체온으로 녹였다. 한참 만에야 여인은 겨우 숨을 되찾았다. 그는 곧 자신의 옷을 벗어 모녀에게 덮어 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절로 돌아와 거적을 걸친 채 밤을 지냈다. 그날 밤 궁궐 뜰에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왕의 스승으로 봉하라"

왕이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니 모든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왕은 예를 갖추어 정수 스님을 궁으로 맞아들여 국사로 책봉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에 몰린 모녀를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옷을 벗어 구원한 정수 스님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머리로 따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움직였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온몸으로 감싸안은 동체대비의 실천이었다.

〈맹자〉에도 이와 상통하는 대목이 있다. 맹자는 사람이 타인의 위급함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을 목격하면, 누구든 놀라 달려가 구하려 할 것이다. 그 행동은 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를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곧 타인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한다. 동체대비와 불인인지심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도 전제하지 않는 무연자비(無緣慈悲)의 한 표현이다.

동체대비는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자애심이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의 법칙성에 근거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역시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살아간다. 모든 존재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한 몸[同體]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존재의 이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보편적 실천이다.

"중생이 아프니 나 또한 아프다"라고 한 유마 거사와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의 뜻 역시 한 몸 한 마음에서 우러난 큰 사랑이다. 동체대비는 존재의 근원적 연관성 위에서 드러나는 큰 사랑의 실천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

도반HC, 3월 31일까지 접수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 원명 스님)가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의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달력으로 제작 가능하고 불교의 정서를 반영한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사계절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구성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정해 12컷(12점)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판화, 수묵화, 어반스케치 등 다양한 창작 방식의 작품도 응모 가능하다.

출품 작품은 가로·세로 400mm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의 이미지 파일(jpg, jpeg, png)이어야 하며, 수작업 작품의 경우 고화질 스캔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는 4월 10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대상 1명(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 금상 1명(팀) 300만원, 은상 최대 2명(팀) 각 200만원, 동상 최대 2명(팀) 각 100만원, 입선작에는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구글폼(https://forms.gle/YeJoQCdBFnb worer9)을 통해 작품을 응모하면 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